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앵무조개 네트워크

speak-out@yonsei.ac.kr

앵무조개 네트워크

2010 봄호



hola studio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책수업리터 [대담] 엉망인 생명학을 위해
이 할 혹은 지켜야 할 n가지 / 낙태에 대해 입을 움직여라 / 성매
와 성구매자에 대한 단상 / 한세벽의 소란스러운 편지 / 낙태 쟁점
이 제기되지 않는가 / 그곳에 나는 있었다 그곳에 나는 없었다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앵무조개 네트워크

C
O
N
T
E
N
T
S



특집: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섹슈얼리티

- 04 [대담] 평범한 성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혹은 지켜야 할 n가지
- 12 낙태에 대해 입술 움직여라기
- 16 낙태 경험: 무엇이 얘기되지 않는가
- 24 그곳에 나는 있었다 그곳에 나는 없었다
- 26 성매매와 성구매자에 대한 단상
- 30 한세대의 소란스러운 편지

경계에서 숨 쉬는 이야기

- 34 불이라서 힘들어요 36 대안활동대 사용후기
- 40 아바타를 보고 왔다 44 Queen Yu-na처럼
- 46 여성노동, 그 끝없는 공정에 관하여

긴긴 겨울 지나 이제 봄

- 49 페미니리 책 읽고 서평 쓰자
- 50 긴긴 겨울부터 봄의 초입까지 (speak-out)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 52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에 함께 해요! 54 총학생회 특별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 55 후기

특집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섹슈얼리티

[대담] 명량한 성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혹은 지켜야 할 n가지

낙태에 대해 입을 움직여보기

낙태 墮胎, 무엇이 얘기되지 않는가

그곳에 나는 있었다 그곳에 나는 없었다

성매매와 성구매자에 대한 단상

한세벽의 소란스러운 편지



특집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섹슈얼리티

왜 이 대답을 하게 되었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자신의 연애사를 물어놓기 마련이다. 연애에 대해 재잘재잘 이야기하다보니 어쩌다보니 각자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하게 되었다. 무엇이 좋은 성생활일까? 섹슈얼리티에 관한 다양한 쏘지 중 하나인 성생활에 대해 고민해본다면, 나는 파트너와 나 사이의 서로 다른 섹슈얼리티를 함께 풀어낼 수 있을까? 성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것을 요구받는 20대 여성에게 성행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여기에 태산같은 고민을 거듭해온 4명의 사람이 모였다. 키보드, 메모리, 마우스, 프린터가 이야기하는 명랑한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

대답

명랑한 성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혹은 지켜야 할 n가지



mark ryden

명랑한 성생활이란 무엇일까?

마우스 서로 서로 좋으면 명랑한거 아닐까?
프린터 서로 서로 좋은 것에 대해서 건강해야지
메모리 건강하다는 것은 몸이 아프다거나 그런 제일이야?
프린터 몸이 굉장히 아픈데 서로 좋으니깐 괜찮다는건 안된다고 생각해.
키보드 한쪽의 몸이 굉장히 아프다면 그건 행복하게 아닌거잖아
프린터 근데 그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속나고 있는거야. 나는 그런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는건 아니야.

오르가즘?

메모리 슷버스라는 영화에 성에 관련된 상담을 해주고 치유를 돕는 여자가 나와. 그 여자는 남편과 50가지의 채위를 즐겨. 그런데 그 여자는 사실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어. 결국 오르가즘이란 채위나 자극의 강도보다 나의 심리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마우스 50가지 채위가 좋은걸까? 그건 50가지 방법으로 성기결합하는 방법이잖아.
프린터 성기결합을 하지 않는 성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
마우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 거짓으로 오르가즘을 연기한다고 셀리가 해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어. 해리가 믿지 않자 셀리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오르가즘 연기를 해보이지.
메모리 재밌겠다.
키보드 하긴 나도 오르가즘은 옥시토신의 과다분비라는 것 외에는 소감이 없어. (모두 함께 큰웃음)
키보드 그런데 재미있는게 분만 할 때 옥시토신 수치가 최고로. 자궁이 수축하니까.
마우스 이갈리아의 딸들에 보면 출산이아말로 최고의 쾌락이라고 하던데. 진짜일까?
키보드 화학적으로는 최고의 쾌락상태겠지.
마우스 화학적으로 바라본 오르가즘은 옥시토신의 과다분비...
프린터 그렇게 무슨 상관있겠어. 옥시토신의 과다분비라니.
마우스 그런가.
프린터 오르가즘=명랑한 성생활은 아니잖아
마우스 응 아니지

성생활?

- 알하고 알해도 부족한 섹슈얼리티**
- 프린터** 그런데 명랑한 성생활인지 명랑한 성기결합인지. 어렵다. 둘은 분명히 다르지만, 성생활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를테면 오르가즘은 성기결합보다 자위할 때 더 강렬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해.
- 메모리** 쉽고 빠르게
(다시한번 큰웃음)
- 프린터** 자위도 성생활이잖아. 명랑한 성생활이 꼭 파트너와 함께 하는 성기결합에 한정해서는 안되지. 성기결합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 메모리** 베티도슨이 쓴 '내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라는 책에는 첫 자위를 첫 성경험으로 봐야 한다는 구절이 있어.
- 마우스** 파트너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나 혼자 하는 자위를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 메모리** 내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거지.

좋은 것은 무엇일까?

- 메모리** 쉽지 않은 것 같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어떤 종류의 쾌락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좋은거지만.
- 프린터** 첫 성경험에 대한 느낌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그거였다는 대답이었던. 자기가 이전에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첫 경험을 비교할 기준이 없는 거야. 그만큼 성에 대한 이야기나 자극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볼 겨를이 하나도 없고, 첫 성기결합때만 그런 질문을 받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버리고, 그런 식이지.
- 메모리** 상대방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 상대가 뭘 느끼는지 집중해야 하잖아. 호흡도 들어야 하고 몸의 반응도 관찰해야하고, 이런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성관계란 정신줄을 놓고 달리는 것, 숨을 헉헉 대는 것 이외에 들은 것이 없었던 나에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
- 마우스** 프린터가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 사람들은 성관계가 진도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게 메모리가 한 말과 비슷한 것 같아.

메모리 맞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새롭게 변화하게 되고, 그날 그날 상대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거지.

올바른 성생활이란?

- 프린터** 어렵다
- 키보드** 깨끗하고
- 마우스** 정갈하고
- 프린터** 위생적이고
- 메모리** 한채운 선생님의 '섹스말하기'를 보면 건강한 레즈비언의 아름다운 손은 손톱이 짧고 정갈한 손이래. 왜냐면 손톱이 자궁내막에 상처를 내면 세균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대. 그리고 키스를 하기 전에 양치질을 한다던가. 청결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야 즐길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맞는 말 같아.
- 프린터** 당연한 얘기지.
- 키보드** 자궁내막 상처는 내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아픈단말야. 외상은 쉽게 아무는데 내상은 장기 내부가 젖어있어서 잘 안아문대.
- 프린터** 자궁내막이 아니라 질 내막 아닐까?
- 키보드** 질 내막이겠다. 자궁 내막보다는 자궁경부를 다치겠지.
- 마우스** 손가락이 이따만해야 하지 않을까?
- 키보드** 아냐. 질 길이가 별로 안길어.
- 마우스** 그러니까 자궁내막까지 닿으려면 손가락이 길어야지.
- 프린터** 자궁내막까지는 안 닿아. 경부는 막혀있거든. 동그랗게. 그리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위가 자궁인거야.
- 마우스** 아. 정자만 들어가는구나.

주위 사람의 조언

- 메모리** 표현하는 것, 좋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야한 말을 하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라는 이야기.
- 마우스** 으악, 부끄러워! 근데 그 말 주부잡지에 나오는 성생활을 위한 조언같다.
- 키보드** 20대가 타겟인 잡지를 보면 매뉴얼화 되어있는 조언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라, 그럼 상대는 더 좋아서 날 뽀할 것이다. 이걸 하면 된다 저걸 하면

말하고

알해도

부족한

섹슈얼리티

된다 등등.

메모리 무슨 초필살기야? 레프트 라이트 팔간버튼 누르는 것도 아니고.

키보드 그런데 사적인 대화에서도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흥 간다 등등.

메모리 지침은 될 수 있잖아. 난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얘기 듣고 해봤더니 되게 좋더라 같은.

키보드 문제는 이런 조연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진리처럼 이야기된다는 거야. 그건 그 커플의 사정인데 말이야. 남자들끼리 콘돔을 안 쓰면 참 좋다더라 이런 얘기 하는거.

마우스 콘돔 안 쓸거면 묶고 오라고 해. 묶었다가 풀 수 있어.

프린터 그런데 정관수술 받아도 정자가 나올 수 있네.

서로의 약속

프린터 성관계를 갖기 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 우리는 언제쯤 성관계를 가질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그런거.

메모리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라고 이야기 하는거지. 결국 약속도 같은 것 같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 않겠다. 상대의 컨디션을 살펴줬다 등등.

마우스 나는 그런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더라.

프린터 처음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메모리 콘돔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몸이나 건강이나 고통에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쾌락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모델에서 쉬고 가자는 말도 정말 싫어. 피곤하다니까 쉬게 해야겠다는 상대방의 배려심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싫어.

마우스 쉬러 가자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모델 가자고 말하든가.

프린터 모델 가자고 하는게 성관계의 동의는 아니잖아. 그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얼마나 많은데. 모델 갔으면 당연히 동의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공간. 우리에겐 없는 그곳.

메모리 나는 모델이라는 환경이 되게 싫어. 자기의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모델이라는 환경에서 얼마나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키보드 돈 낼 때 쑥스럽지.

메모리 성관계를 위해 내가 얻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행복한 것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그래서 아무리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도 모델이라는 공간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야.

키보드 신혼에 있는 하숙집도 좋지 못한게, 벽이 가벽이라서 옆 방 소리가 다 들린다. 그리고 친구가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있고.

프린터 공간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서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키보드 나는 DVD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싫어.

프린터 성기결합을 할 때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DVD방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마우스 공간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정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틀테면 DVD방은 어떤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 너네 하숙집은 사람이 별력벌려 들어오고 소리가 새어나갈 테니까 안된다 이런 거. 그리고 모델에 가는 것을 성관계의 동의라고 일방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메모리 친구끼리 모델에 놀러가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러잖아. 그래서 모델에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 모델의 의미를 바꾸는 게 되게 좋았어.

마우스 나는 모델에 있는 욕조가 너무 좋아. 집에는 욕조가 없거든. 모델에 가서 입욕제 풀어놓고 풍덩풍덩 노는 거지. 공중목욕탕에는 거품목욕 코너가 없잖아.

프린터 모델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문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에 아는 언니는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왜 여관이 성관계의 동의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게 자기는 왜 이해가 안 풀려 했더니, 자기는 대학 때부터 운동권 활동을 해서, 여관은 무조건 술을 마시는 장소였던 거야. 가장 싸게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는 여관밖에 없었으니 거기서 성관계를 갖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마우스 파트너와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까지 포괄한다고 생각해.

키보드 신뢰가 있어야지.

프린터 어딘가에서 10대 학생에게 성관계를 가질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사했는데, 어떤 학생이 공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대. 거기에 파트너에게 해주고 싶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섹슈얼리티

메모리 은 말을 때때로 써서 성관계 후에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줄 거라고.
나도 목소리 내서 같이 책 읽는 거 좋아해.
마우스 난 이불 덮고 같이 자는 거 좋아해.
프린터 경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이 준비되면 좋을까?
키보드 신뢰!
마우스 나는 태블, 그걸로 손을 씻으면 정말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메모리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참 좋아. 상대방이 내 목소리에 애착을 가지고 애정
을 보일 때 좋았어. 나의 목소리, 걸음걸이, 눈 깜빡임, 살에서 나는 맛. 이
런 거에 애착을 가지고 나만의 것으로 인정해줄 때 행복한거지.
키보드 난 냄새맡는걸 좋아하는데 감기 때문에 요즘 후각이 마비되어서 냄새를
못 맡고 있어.

깨끗해요

마우스 태블 얘기하니까 생각난건데, 성관계 시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위생인
데... 어떻게 하지?
키보드 저기 손세정제 있던데 너 가져가.
프린터 가져가서 애인 손에 쥐어줘.
메모리 손톱을 잘 깎아.
프린터 콘돔 유통기한을 잘 따져.

인터넷과 비밀번호

메모리 윤활제라는 걸 사용한다던데?
프린터 수용성을 써야 해.
키보드 안그러면 콘돔이 녹아.
마우스 정말?
키보드 콘돔이 지용성 물질이라서 지용성 윤활제를 쓰면 녹는데.
메모리 윤활제는 어떻게 구하니?
키보드 인터넷! 요새는 사무용품이라고 써서 택배로 온대. 카드기록에도 안 남고,
그런 거 열심히 준비하다보면 정말 마음이 경건해질 것 같아. 콘돔을 경건
하게 내 손에 콘돔을 갖고.
프린터 콘돔이나 성인용품에도 사회적 낙인이 있는 것 같아. 음, 성폭력 상담원

의 목록 중 하나가 비밀번호장이래. 그렇지만 이 비밀번호장이 중요목록이 아
닐 때가 와야 한다는 거야. 비밀번호장이 필요한 이유가 피해자에게 적히는
사회적 낙인 때문이거든. 그런 낙인이 사라진 날이 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마우스 맞아. 약국에서 "콘돔주세요!"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프린터 한 설문조사에서 콘돔을 사용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는 답변은 남녀 모두
비율이 높았어. 그런데 '콘돔을 내가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다.'라는 질문
에는 못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대.
정구피임약을 사러 갔는데 약사가 피임약을 굉장히 풍풍 짜매서 감춰서
주는거야.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마우스 그래도 인터넷덕분에 콘돔 보급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키보드 근데 콘돔이 약국에서 파는거랑 편의점에서 파는거랑 달라?
메모리 편의점 콘돔 완전 별로야. 바닐라 향 딸기 향 들어있고 오돌도돌하고 이런
특이한 게 대부분이고 평범한 콘돔은 한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왜 피임이
잘 되거나 통증이 없거나, 이런 요소가 아니라 맛이나 향이나 자극에 관련
된 요소만이 콘돔의 홍보 요소가 되는지 모르겠어.

마우스 고등학생때 피임에 대해 배웠는데, 그 때 봤던 콘돔이 예뻐했었는데, 냄
새가 진짜 끔찍했어. 정말 쓰기 싫더라.

대답 끝났어요.

우리의 대답은 여기에서 마무리 되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서 각자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무언가 덜 이야기한 기분, 부족한 기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사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을 시작
할 때 무엇보다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성생활부터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섹슈얼리티 이야기 중 간과된 것이 많아졌다. 그러나 재미있게 터놓고 말했
던 이 대답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섹슈얼리티 이야기를 해나가고 싶다.

by 컴퓨터 부속 공동체

낙태에 대해 입술 움직거리기

하나,

나는 성이라는 이상한 것에 대한 정보 없이 종속되거나 끌려 다니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었고 미숙하고 어린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상대에 대한 정보 없이 섹스를 감행하는 원나잇도 해보고 싶었고, 나의 성/별정체성을 구축해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담아두었던 가능성들을 상상해보고 싶었다. 성적인 즐거움과 성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이상한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젊은 여성의 이미지 역시 나에게 밋먹우고 싶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무지함의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실험들이 사류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흘러가는 삶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싫었다.

사실 그런 거였을지도 모른다. 나의 몸과 삶에 있어서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으로 미디어와 일상생활 곳곳에서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어떤 적 같은 것이었는데, 나는 어떻게든 나를 방비하고 싶었고, 어쨌든 그 때의 나에게는 핏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의 안전하고 능숙하고 평온한 섹스라는 것이 참 멀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zhou fan

둘,

10대에는 성에 대해 무지해야 하고, 20대에는 성에 대해 몰라서는 안 되지만 주체적으로 행동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현실, 신촌을 걸어 가다 보면 소주 광고 포스터가 수도 없이 붙어 있다. 그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방에서 나의 몸을 분절하고 몰아붙이고 끌고 가는 시선들과 압력들을 느낀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으니 잠시 모텔방에 들어가자는 애인. 뽀뽀 성관계를 할 거라는 걸 알면서 모른 척 따라 들어가는 나. 성관계를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성기삽입이라는 순간에는 나의 몸을 위한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는 나. 초조하게 월경을 기다리는 나. 그렇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섹스였지만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나 씁쓸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진다.

내 주위를 뚝뚝 배회하는 섹스-임신-낙태의 재현된 이미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나의 맥락과 이야기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누워있었고, 두려워하면서 월경을 기다렸고, 임신을 한다면 아이를 낳기 보다는 낙태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후의 삶을 두려워했다.

내 주위를 뚝뚝 배회하는
섹스-임신-낙태의 재현된 이미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나의 맥락과 이야기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했다.

셋,

지금에 와서, 그 이후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른 방식의 섹슈얼리티들을 생각한다. 20대에 갓 진입한 시기에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경험들은 지금은 내 몸과 기억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가고 있다.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다양한 층위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고민들을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 고민들을 나누면서 혼란스럽고 힘들고 괴상한 섹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납득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몸에 가해졌던 폭력과 억압들을 인식하고,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섹스와 임신, 낙태, 출산 등 얽혀있는 과정들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고 낙인을 찍고 그녀들을 고립시키는 기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녀들의 몸과 삶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더 이상 낙태가 차가운 침대 위에서 차가운 태도들을 견디며 여성 개인이 남 몰래 치뤄내고 걸어 나와야 하는 수술로 국한되지 않기를 원하며, 동시에 배가 부른 채로 학교도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을 그릴 수 있기를 원한다.

넷,

임신을 섹스와 쾌락의 대가로서 여성이 지불해야 하는 무엇으로 여기는 것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임신과 출산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연결 짓는 도구화의 절정이다. 이 속에서 낙태의 경험이 있거나/없는 여성 모두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웃고 말하고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몸과 삶은 그들이 보호하려 하는 '태아의 생명' 만큼이나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



14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임신 및 출산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풀어나갈 때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삶을 재생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온전한 무엇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었다.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여야 한다. 또 이러한 선택을 성/별정체성, 장애, 결혼 여부 등에 얽매이지 않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임신 및 출산이 여성으로서의 삶의 필수불가결한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임신 및 출산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풀어나갈 때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삶을 재생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온전한 무엇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낙태라는 경험을 바라보고 그녀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법과 담론을 바꾸는 작업은 분명 필요하다. 더불어 낙태의 경험을 둘러싼 여성의 미묘한 감정선들을 주체적으로 스스로에게 말 걸고 설명할 수 있고, 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언어와 내러티브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성폭력, 성매매의 경우 여성주의 내부에서 적어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토대가 쌓여졌지만 낙태의 경우에는 그조차 부재하다. 애초에 왜 낙태가 문제로 설정되었는가?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이분법으로 침예한 대립을 만들어놓았는가? 에 대하여 이를 드러내고 따져 묻고자 한다. 다시 다르게 문제설정을 해 나가고자 한다. 낙태라는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들과 국가의 입장보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입장이 더 절실하고 진지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든다.

by 알술 때기 별

낙태 落胎, 무엇이 생기되지 않 는 가

1 낙태의 이슈화

낙태는 마치 이미 충분히 사회문제로서 이슈화된 것 같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고소로 법적 사안이 되었고 많은 여성단체와 의사단체와 언론은 여기저기서 끔찍할 정도로 떠들어대고 있다. '떨어질 낙落' 자씨에는 떨어지다, 낙후하다, 버리다, 죽이다 등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 아마도 '태아를 죽이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지만 와 닿는 느낌은 이미지화 되어 훨씬 더 처참하다. 생각해 보면 낙태, 인공유산, 임신중절, 아이를 지운다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비슷한 행위를 명명하고 있는데 유독 낙태라는 단어로 이슈화 된 것도 참 의미심장하다.



22대 총선거결과

● 사실 이 말이 더욱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지우다. 기억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마치 아이를 가슴 속에 묻는다는 단어를 보듯 마음이 아라다.

2 그러나 낙태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나? - 낙태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낙태에 대한 혹은 낙태라는 단어에 대한 아주 일차적인 거부감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그건 생명의 존엄함과 관련하여 본능적으로 그냥 몸서리쳐지는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성교육 시간에 보았던 피가 난무하는 잔인하고 선정적이기 이를 데 없던 낙태동영상^①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 학습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한 거부감이 통념/편견을 만들어 내는 건지 통념/편견이 그러한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는 정말로 닭과 계란의 문제인걸까.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낙태를 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유사한 것들이 떠오른다. '문란' 하지만^② '무책임'한 '미혼'의 '젊은/어린' '여성'. 그러나 기혼여성의 낙태가 미혼여성의 낙태보다 많다는 사실, 피임에 대한 10대의 인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볼 때 낙태는 특정 나이대에, 피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섹슈얼리티를 고민하는데 있어 누구에게나 제법 일상적일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해서 여전히 낙태는 한 문제적 '여성'의 개인적 문제 인 것처럼 얘기되어지곤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굉장한 사회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요즘의 언론이나 대중토론의 장에서도 버젓이 낙태 반대논리로 활용되곤 해서 사실은 아직 정말로 사회문제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은 사회문제로서 다루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3 낙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개인의 내러티브는 어디에...?

그래, 어쩌면 낙태는 개인적 문제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루자고 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정말 개인에게 집중하여 어떤 한 개인이 어떠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 문제

① 순경 - 낙태 - 피임 교육으로 구성된 학교 내 성교육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보면 이 글의 논점이 더 분명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② '문란한 성생활'이란 단어는 종종 의학서적에도 여러 가지 병의 요인이나 병의 증상으로 나오기도 할 정도인데 사실 문란하다는 단어는 참 어렵다. 그것인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는 것일까? 성관계한 사람의 수로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동시에 성관계한 사람의 수로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혼이고 단 한사람과만 성관계하여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성관계를 할 때 외에는 금욕생활을 하는 것 외엔 다 문란한 걸까? 확실화된 기준을 좋아하는 사회에서 왜 이런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와 함께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낙태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태라는 단어에 압도되어버리고 만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 앞에서 다양한 함의를 가진 낙태라는 것은 태아가 살고 죽는 문제로 환원되어버리고 논쟁은 그곳에 갇힌 나머지 그 언저리 이상은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여성 개인'의 문제라면 왜 논의는 여성 개인이 아닌 태아에에만 집중되고 낙태를 '해도 된다/하면 안된다' 이상으로 이야기 되지 않는가.⁴⁾ 한 생명 - 태아가 살고 죽는 문제라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민이 과연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 논의되지 않는 것일까. 또 태아가 살고 죽었을 때 펼쳐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왜 산모가 낙태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펼쳐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은 같은 비중으로 논의되지 않는가. 현재의 논쟁 속에서 이야기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너무도 많다.

4 낙태를 논의 함에 있어 얘기되지 않는 것, 그 이유

대체 어째서일까. 그것은 낙태가 한 여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⁵⁾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가 개인의 삶과 결코 떨어질 수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결론은 위의 가정과 논의가 무색할 정도로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낙태는 물론 여성 개인의 자기 몸 결정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법의 사안이기도 하며 생명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말함에 앞서 사회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낙태를 단순히 여성 개인 선택의 문제와 생명문제의 대립으로 바라보고 논의하는 것은 다양한 맥락을 삭제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다.

낙태를 문제로 상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회문화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본

주의 사회와 정부는 자신들의 요구와 입맛에 의해 낙태라는 사안을 자의적으로 이용한다.

1)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낙인, 그것은 함께 얘기되어야 한다.

앞부분에서도 밝혔지만 굳이 낙태라는 단어로써 이슈화 된 것은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낙태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많이 쓰이는 까닭도 있겠지만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과 낙태하는 여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는 생각 역시 들기 때문이다. 흔히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면서도 또 쉽게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이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말하거나 남보란 듯 잘 기를 자신이 없어 이기적으로 혹은 철없이 그런 말 한다는 듯 말한다. 물론 쉽게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사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분명 우리사회는 소 유양식에 의해 미디어가 보여주는 양육은 중산층 이상의 양육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기혼여성의 80퍼센트 이상은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며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합법으로 보기도 한다. 낳고 싶지만 경제적 자원이 없고 자원이 부족해서 못 낳는 경우가 분명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실제 심대 낙태율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중산층 심대의 낙태율이 저소득층 심대의 낙태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낙태가 육아와 관련한 경제적 이유라고만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대 낙태 사례를 들여다보면 저소득층의 심대임산부는 고비용의 낙태를 포기하고 차라리 자신들의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회가 보기에 '좀 부족한' 양육의 방식을 택하는 것에 반해 낙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심대임산부들은 낙태를 택하는 경우가 높다. 이런 현상은 심대가 이미 성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 충분히 감지하고 있음과 연결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심대, 혹은 미혼의 젊은 여성인 경우 임신/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 정말로 '여성 개인'에게 집중한다면 왜 그 여성 개인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은 여성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선택으로 인해 여성 개인은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있는지, 혹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거나 사회적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나와야 한다.

● 하나 또 짚을 것은, 수정은 당연히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되는 것이다. 대체 남성 개인의 내러티브는 어디로 갔는가.



낙태를 조장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현상을 함께 보았을 때 낙태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중산층 이상의 육아환상만을 보여주는 미디어와 그 속에서 계층화 되는 낙태문제, 여성의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 시장경제와 정부는 합심하여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정부는 오히려 시장경제의 입장/요구에 맞추어 시시때때로 마음 가는대로 입장을 달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는 인구조절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 내 노동력 증감에 따라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통제해왔다.

현재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낙태에 대한 강경대응은 미디어와 결합해 여성에 대한 통제를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영방송국 드라마 속에서 맥락 없이 저출산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는가, 아이들의 행동치료요법 프로그램이 약간의 오락을 가미한 프로그램에서 본격 정신분석프로그램으로 변해가며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다는가, 저학력/저학벌에 능력 없는 여성들은 집이나 가라 하는 알파걸 담론이나 연아 어머니에서 연아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덕분에 연아가 얼마나 국위선양 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부 대상의 아침 프로그램 등등. 불과 이십여 년 전만해도 마을에 보건소 차가 돌며 월경조질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낙태를 주도해왔음에도 현재 낙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인권의식과 생명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은 절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은 낙태가 불법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합법인 나라다. 어떠한 요건만 갖추면 낙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은 낙태가 가능한 요건들에 대해 밝히고 있는 법이다. 첫 제정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도 않은 다음의 법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을 공권력을 이용해 얼마나 멋대로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여러 논의에서 '재생산'이란 단어가 흔히 쓰이는데 왜 생산권이 아닌 재생산권일까. 단순히 reproduction의 번역일 수도 있으나 국가경제를 이끌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재생산권이란 것은 아닐까.

모자보건법

제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장애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낙태수술이나 불임수술을 강요받는다. 사회문화는 우생학적 이유를 근거로 장애여성들이 섹슈얼리티와 재생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국가는 그 근거를 법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저출산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재생산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충분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시장경제로 진입할 수 없는 노동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무섭다.

또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아내강간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등에 대해 위의 법률은 근거로 강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낙태할 수 있다(물론 강간에

●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중)

결국 법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을 죽인다고 태아를 죽인다.
즉 낙태는 동의어가 아니다.
이는 법을 근거로
태아와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며
낙태를 단순히 살인행위이다...

의한 임신이라도 낙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는 하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성폭력적 분위기가 만연한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강간에 따른 임신과 출산은 모두 분리되어 생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화간신화가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로 콘돔을 요구하는 여성파트너에게 '싸보인다' 라고 말하는 혹은 싸보일까봐 여성파트너 스스로가 콘돔피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회다. 강간사건의 경우 사건 수의 7~8%만 신고 되며 그 중에 절반만이 기소되며 또 그 중의 절반만이 승소한다. 그 속에서 아내강간의 경우는 지방법원의 승소판례만 있을 뿐이며 또한 데이트 강간의 경우 수많은 경우가 강간죄로는 판결되지 않는 편이다. 실제 법은 존재하나 그 적용이 미미한 현실 속에서 강간과 낙태에 대한 논의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한편, 5항에서 얘기하듯이 자궁 외 임신 등과 같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은 더 이상 태아를 태아로 규정하지 않고 신속히 임신부의 몸에서 분리해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즉시 임신중절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태아라는 것은 모체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 때만 태아로 규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아가 사람과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법이 가진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법에서 얘기하는 태아는 사람과 동의어가 아니며 때때에 따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위의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 가능 주수를 24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가 주기적인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에야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한 민사판례에서는 뱃줄을 자르기 직전의 그 전부노출시를 사람의 시작으로 보아 승패소를 결정한 경우도 있다. 결국 법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을 죽인다고 태아를 죽인다, 즉 낙태는 동의어가 아니다. 이는 법을 근거로 태아와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며 낙태를 단순히 살인행위이다, 불법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낙태가 더 큰 법담론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 낙태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확장되어야만 한다.

써놓고 보니 끔찍할 정도로 떠돌어 대는 세상에 일조한 기분이다. 그러나 분명 기존의 문제설정과는 다르게 가야한다. 현재의 협소한 논의 속에서 가부장적으로 구성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억압은 재생산될 뿐이다. 여성의 몸이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멋대로 통제되는 사실도 계속해서 은폐될 뿐이다.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많은 여성단체와 의료단체들이 노력해오고 싸워왔지만 아직도 낙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것 같다. 더 다양한 관점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들어야하지만 동시에 낙태를 단순히 문제적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려선 안 된다. 그 주체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애당초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그 구성은 어떤 식으로 개인과 또 다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확장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을 때 낙태는 기존의 문제설정을 벗어나 단순히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healthuniverse>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색슈얼리티

그 때 우리들의 시간은 정신없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 시간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었다. 우리들은 제법 긴 시간을 함께 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다. 공작인 만남으로 시작한 사이였지만, 어느새 사적인 관계들이 슬금슬금 그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틈새를 자리 잡은 사적인 관계들은, 어느새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그 유대감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그 유대감 사이에서 나는 안정을 찾으려 했고, 나의 소속감을 그곳에서 찾으려 했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 나의 유대감도 그곳에 있었다. 아, 나는 우리들의 공작인 관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적인 관계들을 유대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유대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선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유대감을 애써 붙들고, 나를 그 유대감으로 휘감으려 했다. 하지만 그 유대감은 포근한 이불보다는 단단한 밧줄에 가까웠다. 나는 그 밧줄을 이불인줄 알고 덮으려 기를 썼지만 밧줄이 이불이 될 리는 없었다.

유대감이라는 미명 하의 밧줄에 묶여버린 나는 그곳에서 사라져갔다. 그들은 나의 시간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턱턱 토막 내고 요리하여 자신들의 맛난 안주거리로 삼았다. 나를 '쓰레기'라고 칭한 여자선배와 '살이다'라고 소개팅 시켜달란 말을 하려던 남자선배 사이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성애적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며 너털웃음을 뿌려대던 남자선배 사이에서, 그 옆에서 한술 더 떠 양념이라는 농담

그곳에
나는
있었다

그곳에
나는
없었다

을 뻔해대던 몇몇 동기를 사이에서 나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했다. 나의 거부신호는 그저 '딱중'이 되거나 '장난질 저었어, 미안~' 등의 반응을 데려올 뿐이었다. 내가 받았던 방식으로 나 또한 '장난'을 쳐보려 하면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나는 그 반응에 되려 놀랐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나를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을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애써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보이려고 했다. 가볍게 대하면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부담이 덜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부담이 가벼워질수록 그들의 말은 점점 나를 손쉽게 지워갔고, 나의 부담은 무거워져만 갔다. 나는 재빠르게 사라져갔고 나의 부담감만이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곳에 있던 이들은 서로의 삶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신없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의 삶을 용서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은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 따지고 보면 나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술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특정한 몇몇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우리들의 술자리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사라지고는 했다. 지갑이나 안경 등의 소지품부터 '정신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억까지.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파괴적인 술자리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서로가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챌까하면, 나의 유대감은 그래도 나를 얹히고 나를 아프게 파고들던 밧줄이 아니라 그래도 따뜻한 이불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가 그 곳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느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그 기억에 송두리째 내가 잠아 삼켜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곳에 서서 나의 기억을, 나의 삶을 용서할 수 있기에 다행이다. 나의 삶에 대한 애착을 아직까지 놓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by 이재는 기억에 집착하지 않아서



성매매와 성구매자에 대한 단 상

성매매는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단어다. 과거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성매매여성)을 지칭하는 윤락여성(윤락女性)이란 단어만 지칭되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성매매여성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 명명(명명)이었고 성매매여성 외에는 더 이상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매춘(賣春(봄을 팔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성매매는 도덕적인 문제로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없는 성산업적 거래행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매춘이라는 단어에는 성을 판매하는 행위만 드러나 있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은 금방 매춘(賣春(봄을 사고팔다))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매춘의 춘(春)이 사회 내 일반적 용례에서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행위를 미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매매춘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性賣(성을 사고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명명의 청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일련의 과정은 긴 여성운동의 결과였고 이제는 성매매라는 단어가 윤락여성, 매춘, 매매춘이라는 단어에 비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반성매매/탈성매매에 대해 이야기 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성매매란 단어에서 쉽게 떠올리는 것은 성매매여성뿐인 것 같다. 그래서 인지 성매매여성의 생존권, 성매매여성의 노동권, 성매매여성의 자발성 등만을 논하며 성매매는 딜레마다, 필요악이다-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여러 차례 쥐어뜯은 후 더 말하기는 어렵다는 듯 입을 다물고 논의를 끝내버린다.

● 법적으로 성매매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자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매매 사례를 볼 때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만이 성매매라고 보는 것은 수많은 요인으로 피해 받는 성매매여성과 사회맥락을 보았을 때 지나치게 협소한 정의다.

본명 위에 나열된 성매매여성에 관한 내용은 성매매 사안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맥락의 성매매 관련 이야기 중 일부분일 뿐 전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많은 성매매 관련 이야기 중 성구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성구매자가 왜 성을 구매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성욕 해소'가 등장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욕'을 해소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불법이 되는지 되묻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 성매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성욕 해소라는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만약 성매매가 정말로 성욕을 위한 것이라면 성구매자는 성매매여성에게 성관계만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톰파롱에서 '진열된' 성매매여성들에게 뒤로 돌아봐라, 웃어봐라, 하면서 물건 고르듯 여성을 선택하는 것, 자기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너는 왜 이따위로 살고 있느냐고 도덕적 비난을 가하고 멸시하고 인신모욕을 주고 폭행을 가하는 것이 과연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신촌에도 넘쳐나고 있는 휴게텔이나 키스방과 같이 소위 '성관계가 없는 성상품'을 파는 변종 성매매업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성매매여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세한탄을 하며 위로와 관심 등의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설명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노동을 해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성구매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매매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다. 성구매자들에게 있어 성매매는 이미 위계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성별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여성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확인받고, 남성이 아닌 타 집단을 배제하고 지배함으로써 더 강한 남성성을 승인받는 행위이다. 이때 말한 '더 강한 남성성'은 현대 사회에서 핵심적 남성성의 규범으로



프랑스의 고급 디저트

자리 잡고 있는 남성성이다. 이런 규범적 남성성을 위해 남성들은 경쟁적, 권력 지향적, 지배적인 능력을 쫓도록 사회화되며, 사회는 이런 사회화로 인한 타인을 조 정하고 통제하려는 행위, 그리고 그를 위한 폭력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런 사회화는 정복/복종, 남성성/여성성의 이원론적 위계담론을 형성하는데 이런 이원론적 위계담론에 의한 여성의 지배적 태도를 보이는 극단적 폭력행위는 성매매, 성폭력의 형태로 드러난다. 간혹 성매매를 금지하는 경우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매매와 성폭력의 요인이 결국 한 뿌리에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주장이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마치스모³⁾적 집단문 화 속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결국 형태만 다른 거의 같은 문제이다.

이 일련의 내용은 누군가에겐 이미 친숙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와는 절대로 관련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성구매의 사회 적 속성을 밝혔으므로 더더욱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나의 여 자남자친구/애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며 적어도 나는 그런 것과 관련 있는 사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성매매는 강한 남성성을 승인받는 행위이며 한국 사회는 강한 남성성을 끊임없이 재현할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쉽게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노출 되기도 쉽다. 성구매자 개인이 약간의 돈과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혹은 구매자가 속 한 집단이 규범적 남성성을 많이 요구하는 집단이라면 성구매는 굉장히 쉽게 일상 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설문에 따르면 처음으로 성구매를 하는 시기로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술자리에서 어울려서 놀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우 리와 비슷한 나이의, 우리와 비슷한 방식의 술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 보다는 집단의 선택으로 성구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사실 취직 안 하는 여자선배로부터 술자리가면 3차쯤엔 나를 꼭 집에 가라 그러면서 남자들끼리 어디 놀러가더라, 다음날 같이 웃으며 말하는데 나는 끼지도 못하고, 물론 더러워서 끼고

● 성구매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구매는 단순히 상품구매일 뿐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구매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일 뿐이다. 성구매가 정말 단순한 상품구매이며 성매매가 금전거래를 매개로 한 자발적 개인 두 명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합의라면 도덕적 이중잣대가 보여서는 안 된다. 성구매자와 성매매여성에 대해 전혀 다르 게 작용하는 도덕적 이중잣대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구성된 위계적 성별관계계를 일시한다.

● 마치스모(machismo)란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여자들이 하지 않는 무모한 짓을 함으로써 자신이 남자인 것을 과시하고 확인해보는 행위를 말한다.

실지 않기도 하지만 소외감 느낀다. 이런데서 일을 오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 다. 하는 얘길 듣는 건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다. 또 아는 남자선배로부터 아는 형이/직장상사가 한잔하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아가씨 나오는 집이더라, 옆에 아가 씨가 술따라주는데 민망해 죽겠는데 딱히 뭐라고 하기 췌해서 가만히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집단/사회생 활을 해 나가다 보면 성매매는 언젠가 꼭 부딪치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성매매 문제는 외마로 혼자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여성(착취)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규범적)남성(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성구매자)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가부장적)집단/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여성/남성이거나(이분 법에 의해 규정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집단/사회에서 살아나갈 사람이라 면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성매매/탈성매매에 대해 고민하 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을 시작했을 때 어찌면 개인은 쉽게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구매를 권유/강 요받았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어렵지 않은 친구라면 거부사를 밝힐 수 있겠지만⁴⁾ 그 사람이 직장상사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장에 집단문화에 따르지 않으 면 개인은 어떤 압박/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묵인하게 되고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자. 집단문화는 개개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구성해나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집단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를 몇 번만이라도 좌절시켰을 때 집단문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 기도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구매 거부 당시 받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던 불이익을 상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문화 속에서 성구매를 요구받을 때 혹은 집단 문화 속에 성매매가 일상적인 때 그에 대한 이런저런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인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다. 성매매 문제의식에 대한 때때의 환 기와 약간의 판 바꿈만으로도 한 개인은 문화의 꽤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다.

● 물론 어울려 노는 (도락)집단이 강한 남성성을 많이 요구하는 집단이라면 편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성구매를 거부하는 것은 강한 남성성을 승인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집단 내 구성원의 관계가 대등하다면 성구매 거부사를 밝히고 편을 바꾸는 일을 하는대까지의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1 겨우내 새벽까지 깨어있을 때면 편지를 보냈다.

너는 간간히 답장을 보냈다. 그래서 안녕. 너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청자일지라도 나를 상정하지 않고선 나는 글을 시작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무서움을 조금 달랠 수 있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미 무엇인가를 밝혔다. 밝히고 또 밝혔다. 네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었으면 하는 사실들을 밝혔다.

그것은 관계의 전부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며 오히려 관계를 열매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행위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어쩔지 과잉되어 있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사람들은 일치 감치 모든 것에 남김없이 속성과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욕망과 환상, 반복되는 호명을 거부하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말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말하고 보니 사실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사실은 아니었다. 그렇게 누군가의 얼굴을 뚫어져라 끈덕지게 바라보다 보면 다른 얼굴들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관계에 앞서, 관계 속에서 섹슈얼리티를 고민하게 된다. 나는 시시때때로 엄연히 주장하고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장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주장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장 자체에도, 주장을 없애버리려는 것에도 먹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순 나 자신의 독특한 무엇인가를 입증하려고 한다. 어디서부터 주장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것을 밝히게 되었을까.

2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해매고 있어. 처음에 섹슈얼리티와 관계라는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한 건 내 속의 답답함을 풀어내려고 한 거였는데 정작 어디가 어떻게 답답한건지 모르

한새벽의 소란스러운 편 지



겠다. 섹슈얼리티도, 관계 때문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을 관통하는 병이 있고 그 김에 다 병들어버렸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끼리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말할 때면 매번 내가 발끈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던 그 지점이 똬지 포착해내고 싶은데, 길을 잘못 든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의 그 갈림길을 포착해내고 싶은데, 그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성난 고양이처럼 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말이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문을 땄 때 내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러니까 뱀의 꼬리부터 밟아나가 보자면, 성기결합, 성애화 된 여성, 여성이란 정체성으로의 회귀화, 배타적인 연애, 그럼 성매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인어공주, 동성애중심주의와 헤테로포비아, 화장실과 공중목욕탕, 나는 내 경험을 공감의 기준으로 취사선택 할 수밖에 일단 말아야, 니가 너무 예뻐서 다 젖었어, 속 대 속의 교감, 한없이 부드럽고 고요한,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원하나요? 내가 당신을 충분히 원하고 있나요? 먼저 말하자면 저는 바이섹슈얼이지만 이성연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밍아웃의 공포, 짧은 머리, 욕망찾기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경구피임약, 짧은 포옹, 춤과 워크, 집단연애와 정치, 대상화.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는 09년 여름 방학 여성주의 세미나에서의 섹슈얼리티 파트, 두 번째는 욕망 찾기, 세 번째는 명랑한 성생활 좌담회였다. 그리고 그 세 차례의 대화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 성관계였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당황해했던 것이 기억난다. 어, 이런 거였나?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면서 어, 이런 것 까지 말해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섹슈얼리티의 표현인 거겠지? 라고 어러둥절



해 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의 경우에는 성관계에서 성기결합 혹은 이성애가 중심이 되는 것도 그랬지만 애초에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성관계 밖에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 왔지만 그 이상으로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기도 했다. 나머지는 무척 개인적이고 섬세하고 당사자들 간에만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영화 한편 소설 한권을 써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니,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상황, 오르가즘 등의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모호하고 포착하기도 어려운 그 때 그 때의 욕망, 감각, 충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하지만 가끔씩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기도 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미묘한 표정, 침묵, 한 마디 들로 조각들을 이어 맞추어 갈 수 있었던 적도 있다. 천창이 열려있는 가파른 계단처럼 그/너들의 세계로 뛰어 들게 되는 조그만 여자들이 분명히 있었다.

섹슈얼리티와 연애가 함께 이야기되는 것 역시 묘하게 위태롭다고 생각했다. 이 건 내가 구축해온 기이한 관계망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모두 조금씩 기이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 연애라는 안정되고 합의된 배리어를 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 라고 의아해했다. 왜 낯선 사람의 뒷모습에서, 익숙한 사람의 옆얼굴에서 느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라고. 어쩌면 지나치게 외로웠고 지나치게 궁금해 했던 것에 불과했는지도 모르지만, 연애를 둘러싸고 그/너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나의 괴롭고 혐오스러웠던 섹슈얼리티를 치유해주었고 그 문제가 내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좀 더 밀고 나아가 보고 싶었다.

3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로 스며들어가는 내가 그렇게 천천히 언 땅을 녹이고 변화해갈 때의 느낌들을 설명하고 싶었다. 폭력적이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도 없이, 다른 방식의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설명해 내고 싶었다. 그림자 위에 미봉지를 덧대고 세밀한 펜으로 베껴내고 싶었다. 나는 애초에 감정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그 감정은 대상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대신 그것을 덩굴손의 그물로 뒤덮기 위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점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스치듯 기어오르고, 쓰다듬고, 바짝 달라붙고, 연연하지 않는 일을 피워내었다. 그동안 나는 표정하나 변하지 않을 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얼굴을 돌려, 세상에서 제일 아하게 너를 가지고 싶고 거칠게 발가벗겨 버리고 싶기도 하지. 나 사실은 그 때 너하고 자고 싶었다? 고 말하고, 관계가 무너져서라도 입을 맞추고 싶었고, 너랑 자서 좋았어, 너도 좋았으면 좋겠다. 는 말을 듣고 안도했지.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저 조금씩 내 안의 낙인들과 방어벽들을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여러 개의 몸으로 어린아이처럼 논다. 우리들은 바람과 나무가 되고, 고양이와 새가 되고, 해와 하늘이 된다. 마음이 조각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여러 개의 마음이 되고 싶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경험만이 나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험할 수 없었던 것과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이 함께 흘러간다. 그러다보면 창 밖 풍경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땅 위의 세계를 본다. 우리들의 몸과, 이곳과 저곳의 경계가 푸르스름하게 모호해진다. 어스름이 내린다. 시간과 기억이 홍수처럼 지나간 자리가, 달아버린 몸과 마음의 안팎 구석구석이 따뜻해진다. 내 안에서 일어난 작은 뒤물림들을 찾아 미로를 헤맨다. 사람들을 알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인격화되어 있고 유한하면서도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 내가 밝히고 주장하고 말하려 애쓰는 것들이 모호한 환상과 욕망의 교차로가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불러들인다. 그곳에서부터 정물들의 귀퉁이가 조금씩 비둘어진 풍경이 펼쳐진다.

by 한새벽의 잘 못 부르는 노래 별

아 봄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코트를 입어야 하나 고민이 되어서 힘들어요.

꽃이 피는 걸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박이 듣는 걸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제는 간간 겨울내 잠들어있던 자신을 깨우고

봄을 알리기 위해 부신하듯 새 싹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힘들지도 않나 봐요.

버스창 너머로 햇살이 비추는 언뜻빛의 물결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서

버스에서 멀미참고 책 읽는 버릇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나와요.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봄이면 언제나 잊지 않고 찾아오는 감기 때문에 힘들어요.

봄이면 언제나 잊지 않고 찾아오는 황사 때문에 힘들어요.

과방에서는 학벌신역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되어 우물한 새내기들이 미망 다녀왔는데

어디는 얼굴이 속대발이나 앞으로는 어대방만 해야겠노니 자꾸 입을 눌러서 힘이 들어요.

매주 물러오는 과제목표와 다섯 시간동안 햇빛 안 드는 실험실에 갇혀 기를 쓰고

매달려도 끝나지 않는 실험이 힘들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금 학교를 꾸역꾸역 매우고 그 사람들이 내뿜어내는

그들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힘들어요.

주먹밥 하나 사들고 나오려고 찾아간 학교 매점에 사람들 줄로 꽂혀 차 있어서 힘들어요.

꽃가루가 휘날리면 끊임없이 눈물과 콧물이 흘러서 힘들어요.

본명이 바깥세상은 봄이라고 손짓하고 있는데 반지하 교실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다 보면 자꾸 코끝이 시리고 손끝이 시려 힘들어요.

봄이라서 힘들어요



한문호



하지만 철지난 라디에이터가 혹시라도 갑작스레 폭발할 듯이
증기를 내뿜어 대면 잠이 오겠지요.

여전히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힘들어요.

10년 동안 학내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생각하니 힘들어요.

이 답을 정부는 '애타 못 지우게 하면 남을 수밖엔 없어서'

출산율이 높아날 거야 라고밖에는 생각을 못해서 힘들어요.

좌파 교육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늘어났다고 마구 내뿜어대는 사람을

신문에서 봐야 해서 힘들어요.

송도캠퍼스 봉헌식을 했더니 백양로에 걸린 고공 풍랑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며까지 봉헌식을 해야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 힘들어요.

학교를 청소하고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의 빚값도 주지 않는

학교의 치사함을 바라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알레르기 때문에 얼굴 전체가 가려워서 힘들어요.

차라리 따뜻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눈만 내리다가 세상이 이렇게 조용히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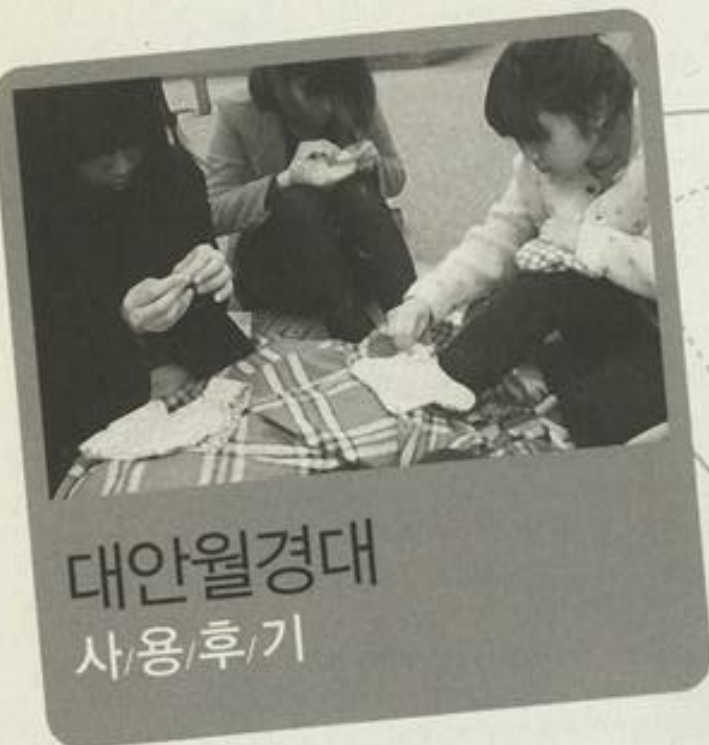
적당한 어두움에 침잠되었으면 좋겠어요.

옷깃 속에 두터운 목도리 속에 나를 계속해서 숨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아직도 겨울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긴긴 겨울동안 나의 몸은 겨울의
속도에 나를 맡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들 3월이니까 봄이라고 해요. 뭔가 3월이니
까 봄을 맞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할 것처럼만 그래요. 새내기들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기
분을 내야 한다고 그래요. 자꾸 그러지 말아요. 나에게에는 나의 삶의 속도가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3월이라면 모두에게 봄이 와야 한다고, 봄 기분을
내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무조건 3월에 끼워 맞추는 것이 나에게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요. 나는 동전의 앞과 뒤를 뒤집듯 그렇게 손쉽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삶이 힘들고, 나는 나의 삶의 속도를 따라가고 싶어요. 지금의 나는 힘들어
요. 왜 그거 하나 못 버티고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의 내가 힘들다고 했지 내가 평생 힘
들 거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나는 나의 속도를 따르면서 살 거예요. 나에게도 봄은 오겠지
만,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나의 봄이 오는 속도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속도는 조금 다
른 것뿐이에요. 나에게 봄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봄을 어서 맞이하라고 다그치지 마세
요. 내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날에, 봄을 두 팔 가득 껴안고 봄을 맞이할게요.

by 추워서 못견디겠다니까요 씀



대안월경대 사용후기

1 결심, 그리고 오랜 게으름

2009년 여름에 누군가 나에게 이 세상에는 천으로 만든 생리대가 있고, 제법 쓸만하며, 써본 결과 꽤나 괜찮다는 평을 해줬다. 꽤나 솔깃한 꾀리였다. 나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그리는 일에는 어릴 때부터 흥미가 있었다. 거기다가 내가 만든 물건을 사용한다니,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결심했다. 좋아, 면 생리대를 만들어보자. 그거 만드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는다고 하니 좋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사람들의 야심찬 결심은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였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음만큼은 오늘 저녁 당장 바느질을 시작할 것 같았지만 타고난 게으름은 '내일 해도 괜찮아'라고 나를 유혹했고, 결국 하루 이를 미루다보니 어느새 방학이 끝나있었다. 어느 날 동대문에 갈 일이 생겨서 재료를 사왔지만 어떤 일인지 재료는 실종되었고 집을 몇 번이나 뒤져봐도 재료는 나오지 않았다.(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면생리대를 만들겠다는 나의 다짐은 무한한 게으름에 묻혀가고 있었다.

2 살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하다

생리가 끝나갈 무렵에 꼭 면생리대를 만들어서 다음 달에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음 생리가 시작할 때 아차 깜빡했구나~ 라고 후회한 것이 대충 대여섯 번 지나갔다. 처음 결심한 후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미루고만 있었다. 그렇게 미루고 미뤘던 일을 단박에 처리하게 만든 원인은 내 몸의 이상징조였다.

일단 생리가 끝날 즈음 되면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견딜 수 없었다. 통풍이 되지 않는 화학약품덩어리 일회용생리대를 일주일 가깝게 착용하고 다녔더니 피부가 짓무르고 두드러기가 생겼다. 둘째로 내 몸에서 나는 끔찍한 냄새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생리혈이 일회용생리대에 흡수된 후 빠져서 나는 악취는 생리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나도 내 몸에 배어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이것 역시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얻은 병이라고 결정지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했던 문제는 나의 생리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진통제를 삼키며 생리통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나를 혐오하고 싶지 않았다. 생리통 경감의 해결책으로 진통제 처방과 출산을 제시하는 무책임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다. 진통제를 먹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아직 결혼 계획도 없고 출산 계획은 멀기만 한 나에게 출산 이후 생리통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은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나는 생리통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고 면생리대를 사용하고 생리통이 줄었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걸어보았다.

극심한 생리통, 가려움증, 냄새라는 월경 관련 난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나는 결단을 내렸다. 화학약품 덩어리인 일회용생리대를 버리기로 한 것이다.

3 쉽지가 않아

일단 동대문종합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는 것이 우선이었다. 피자매연대 홈페이지(www.bloodsisters.or.kr)에서 동대문 상가 어디에서 재료를 파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동대문으로 향했다. 복잡한 상가를 돌아다니며 곰돌이가 그려진 보들보들한 겹감용 용천 2마, 말랑말랑한 안감용 테리타을 1마, 단추로 쓸 가시도트 25개를 사왔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두둑한 천을 보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하지만 의외로 한 개 만드는 일이 마냥 쉽지는 않았다.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래 그럴듯 쉬운 일도 바빠 긴장해서 입했더니 괜히 일만 느려지고 몸만 피곤했다. 박음질 한담에 0.1cm가 될 정도로 과도한 꼼꼼함을 보이며 바느질을 해냈으니 어찌 보면 미련하고 바보

경계에서 숨 쉬는 이야기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한 시간이 넘게 고생을 한 결과 어찌 어찌 생리대 한 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완성된 면생리대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엄마와 언니한테 파다파다 흔들면서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만든 생리대가 내 새끼 마냥 그렇게 아낄 수가 없었다. 금세 집어서 속옷함에 넣어둔 후 언제 생리가 시작할까 기다리고 있었다.

4 놀라운 변화

슬슬 생리가 시작할 것 같은 날에 처음으로 면생리대를 착용해봤다. 오, 그 순간 나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회용생리대 회사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구현하려고 하는 보들보들 순면감촉은 면생리대의 보드라운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어쩔 이렇게 보드랍고 편안할까! 어찌면 그들이 일회용생리대에서 재현하려는 이상적인 생리대는 면생리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좋은 감촉, 통풍이 잘 되는, 냄새가 나지 않는, 몸에 좋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면생리대님이였다.

사실 첫 달은 혹여 생가 고민하며 양이 적은 날에만 사용했다. 양이 많은 날에는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고 양이 적은 생리시작과 생리끝물에는 면생리대를 사용했다. 놀랍게도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냄새와 가려움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생리가 끝날 무렵부터 일주일 내 몸에서 났던 냄새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가려움도 전혀 없었다. 두드러기도 없었다. 일회용생리대가 통풍이 안 되고 뒹뒹 들어간 화학약품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생리통은 아직도 남아있다. 뛰어다녀도 될 만큼 가벼운 달도 있었고, 죽을 듯이 아픈 달도 있었고, 움직이면 괴롭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리저럭 참을만한 달도 있었다. 몇 년간 나를 괴롭혔던 생리통이 하루아침에 딱 사라지는 것은 무리였을까. 몇 달 더 사용해보면 나아질 것 같긴 하다면, 극심한 생리통은 분명 난치성 증상인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7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을 설명 할 길이 없으니까.

5 손빨래가 싫어

일회용생리대는 사용 후에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빨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편리하다. 그러나 일회용생리대의 이 편리함은 내가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숨겨버린다는 문제를 낳는다. 나는 생리대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야하고 쓰고 난 생리대도 재빨리 처리해야 한다. 기회 단계부터 여성이 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생리 때만 되면 잘 빨아서 주렁주렁 널어놓은 면생리대와는 정반대다. 그래, 면생리대는 일상이 아니라고 규정당했던 나의

월경을 일상적인 행위라고 긍정해주고 있어! 면생리대를 세탁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면생리대 빨래는 정말 귀찮다. 무엇보다 찬물때문에 손이 시렵다. 예전에는 생리혈이 팬티에 묻었을 때만 간간히 했던 손빨래지만 이제는 생리기간 내내 손빨래를 하고 있다. 때로는 바닷물에 담가놓은 면생리대를 꺼내서 행구는 걸 깜빡하기 일쑤다. 귀찮음이 극에 달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왜 면생리대 전용 세탁기는 없는걸까? 요즘은 온갖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화장품 전용 냉장고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도 있는 세상인데, 충분히 있을만하고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없다. 아마도 많은 여성이 일회용 생리대 이외에 다른 생리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일회용생리대만 사용해서, 그래서 면생리대를 세탁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면생리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면생리대를 판매하는 기업도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면생리대 전용 세탁기가 시판될 것이다. 나는 굳게 믿고 있다.

6 다른 세상을 꿈꾸며

가끔씩 많은 여성이 면생리대를 쓰는 세상을 그려본다. 그 세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매우 다를 것이다. 그 세상에서 면생리대는 하나의 속옷처럼 취급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가 매 시즌 면생리대 컬렉션을 제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엄청나게 흡수력이 좋은 소재가 발명되어 안감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마치 등산복의 고어텍스 같은 기능성 섬유가 생리대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쁜 속옷을 선물로 주듯 예쁜 면생리대를 선물로 주고받는 훈훈한 광경을 기대해본다. 면생리대를 빨기 편하게 설계된 작은 세탁기가 여러 가전제품 회사에서 판매될 것이고 면생리대 세탁기를 구매하면 고급 면생리대 3종세트가 사은품으로 딸려올 것이다. 초경을 맞은 딸들은 가족들이 고른 면생리대를 선물로 받으며 월경의 시작을 축하할 것이다. 마치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바의 초경을 축하하듯 신나고 활기차게.

비록 지금 현실은 내가 생리중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기는 아직도 쑥스럽고, 생리대를 주고받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게 되며, 한 손에 생리대를 들고 화장실로 향할 때 나도 모르게 생리대를 숨그러니 감추지만, 이런 꿈을 꿀 때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롭다. 면생리대는 사용하기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 몸이 월경을 한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도 되고, 월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건이 불편할지라도 그것 또한 나의 일상이라고 속삭여준다. 나는 크게 소리치고 싶다. 나의 월경은 내가 관리한다! 화학당어리 일회용생리대에서 벗어나자! 면생리대 만세!

by 친환경 월경 로하스 그린 에코 기린





아바타를 보고 왔다

Prologue

겨울이었다. 만드는 데 천억을 들였다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 신문에서는 천억을 쏟아 부어 고작 이것밖에 못 만들었다고 했다. 워낙 영화를 보지 않는 나인지라 그저 그런 영화가 또 나왔구나 했다. 그런데 보고 온 이들의 반응이 달랐다. 다들 입을 모아 재밌다는 등의 칭찬을 해냈다. 게다가 감동적이라고까지 했다. 슬금슬금 호기심이 동하던 차에, 같이 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동생이 보러 가지고 나를 꼬드겼다. 딱맞춰서 시간까지 넉넉하게 생겨 버렸다. 나는 결국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꼭 3D로 보고 아이맥스 상영관에 가서 보라고 했다. 아이맥스 상영관은 성인에게 16000원을 내란다. 눈물을 머금고, 얼마나 재미있나 두고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예매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 왔다. '아바타'를 보았다.

#1 그래서 영화의 즐거워

영화의 즐거움은 간단했다.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전직 남성 군인이 외계에 파견을 나가 그 외계종족의 땅에 있는 광물을 채굴해야 하지만 남자는 나비족 우두머리의 딸과 사랑에 빠지고 나비족을 사랑하게 되어 나비족과 함께 지구인들과 맞서 싸우고 나비족의 영토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세 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의 즐거움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다만 특이한 점은 나비족이 사는 행성의 기후가 인간에게는 맞지 않아 나비족의 몸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하여 나비족의 몸으로 다닌다는 점이었다. '인류의 기술이 여기까지 발달했어요, 대단하죠?' 라고 보여주고 있는 듯 했다.

#2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뒤통나가고 싶었다. 나한테 이 영화를 보도록 꼬드긴 그 모든 사람들을 원망했고 공중으로 분해된 내 16000원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 영화가 어디에 그렇게 칭찬할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인지 눈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서 찾아보아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영화에서는 끊임없는 이분법이 등장한다. 자연과 인간, 외계인과 지구인, 미개인과 문명인, 원주민과 침입자, 보존과 개발, 여성과 남성 등등. 모든 상황은 한 쌍의 것가닥 마냥 딱 둘로 갈라져 있다. 그리고 이 것가닥마냥 갈라진 두 대립각은 그 단어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통념으로 툭툭 뭉쳐 있다.

광활하게 펼쳐진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교감' 하며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생활하며 어머니라고 불리는 자연을 믿으며 살아가는 '미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비족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들어오거나 티브이에서 만난 밀림 속의 원주민들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가 많이 들곤 했던 교감의 장면이 영화에서는 시각화된다. 나비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축수와 동물의 축수를 접촉하는 방식인데, 나에게서는 USB메모리스타를 컴퓨터 본체에 꽂는 것을 연상케 했다. 축수를 꽂고, 심장소리를 느껴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교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단적인 면모가 다분했다. 어떤 동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비족들은 교감을 하고 있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과 교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감하지는 않는다. 상대와 온전하게 서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왜 그런 모습에 '교감'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야 했는지가 의아했다. 그것은 교감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너는 내 것이다.'는 낙인찍기에 불과해 보였다.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시절부터 지겹도록 보아온 '예쁜 추장 딸'과 '새 땅을 개척하려 온 백인 남성'과의 사랑은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는 뒤집어 지는 것 같았다. 여자 주인공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녀는 남자 주인공을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자연 속을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존재였다. 남자 주인공에게 나비족의 삶의 방식을 주도적으로 가르치던 것도 그녀였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는 '나비족의 아름다운 추장 딸'과 '나비족의 딸을 쓴 광물 착굴 임무를 맡고 온 남성'과의 사랑으로 포장되며 사랑하는 이 앞에 선 수줍은 모습의 여성과 그 여성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리드하는 남성의 이성애적 연애 각본으로 귀결된다. 물론, 선남선녀들이 사랑에 빠지는 건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언제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새로운 상상력의 영토인 '외계'마저 여성과 남성으로 칼로 무 자르듯 썩썩 잘라놓은 모습에 질려 있던 내게 한술 더 떠서 나타난 이 행성간의 거리를 초월한 이성애적 대서사시에 나는 점점 짜게 식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부르짖는 박사와 '우리는 광물만 캐가면 어찌되든 상관 없어요'라고 하는 관료의 구도는 어릴 적부터 사회학에 나왔던 개발 논리와 보존 논리의 알상한 재현으로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뻔하디 뻔하게도 개발 논리가 승리하지 않았던가. 내가 어린 시절에 멋모르고 좋다고 보아온 그 모든 디즈니애니메이션/할리우드영화의 총 집합체가 천억 짜리 블록버스터로 내 앞에서 그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본격적인 인간무리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할리우드 액션 씬'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 죽이고, 다 깨부수고,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스크린을 폭파 채우고, 나비족의 비명과 무기가 터지는 소리가 내 고막을 진동시켰다. 나비족은 거대한 화염 앞에서 무기력했다. 수많은 이들이 그저 죽어 나갔다.

자신이 사랑하던 나비족의 땅이 무기력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고뇌하던 남자주인공은 이태를 놓치지 않고 '짜잔'하며 나타난다. 나비족을 배신하고 도망간 상황에서 빈손으로 가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테니 호쾌하게 전설의 새를 타고 나타난다. 거대한 새를 타고 나타난 남자주인공을 숭상하는 나비족 앞에서 나는 또 다시 경악했다. 종족의 배신자가 커다란 새 한 마리를 잡아타고 나타났다고 이렇게 손쉽게 신뢰받는 이가 되다니!

물론 그 새가 그저 단순히 '크고 난폭함'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영화를 착실히 본 사람이라면) 알지만, 난폭한 새를 잡아올 수 있는 '남성성' 앞에 사람들이 너무 손쉽게 무릎 꿇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불편했다. 자연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절대적 힘을 가진 남성성'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근거는 영화 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순식간에 전설적인 존재로 바뀐 남자주인공은 여러 종족들과 함께 '게릴라전'을 감행한다. 비행기 대신 새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지구인들의 전투기를 향해 호쾌하게 총을 쏘아대며 무자비한 살육을 진전 시간 동안 펼쳐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그저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싸움터로 변할 뿐이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시각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며 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전투 장면에 막대한 제작비를 퍼부었을 제작진의 사고방식이, '나비족의 땅'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그들의 침입자들과 다를 바 없는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드러나자 나는 통쾌함이 아닌 절망을 느꼈다.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 편에서 있는 이들은 무조건 죽이면 된다는 메시지가 그 큰 스크린을 가득가득 채우고 커다란 상영관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죽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아무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 앞에 나는 먹먹해졌다.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을 정당화 시키는 그 논리는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억지스러웠다. 갈수록 가관인 영화 줄거리 앞에서 점점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어져 왔다.

그 어떤 악몽보다도 커다란 악몽이 내 앞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제발 빨리 끝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끝도 없는 이분법으로 시작한 영화는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폭력으로 물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무기를 들고 뽀듯한 표정으로 무기력한 지구인들을 쫓아내는 나비족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났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할리우드 영화의 각본에 절말까지 충실한 채였다.

Epilogue

영화는 끝이 났고, 상영관에는 불이 켜졌고, 사람들이 빠져 나갔다. 상영관을 나가는 사람들은 줄줄이 영화에 대한 칭찬을 하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세 시간 가까이 펼쳐진 끔찍한 이분법과 끝도 없는 폭력으로 물든 그들의 천억 짜리 상상력에 너털너털해 진 채로 극장을 서둘러 빠져 나갔다. 영화를 보고 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 이제 아 나는 이렇게 글을 쓴다. 나를 송두리째 으깨버릴 뻔한 그 영화 덕에 원래부터 너털너털했던 내 삶이 더더욱 너털너털해 질 뻔 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

by 다시는 내가 할리우드 영화 보나 봐라 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간의 09/10시즌은 다른 때보다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김연아의 팬이 되었고 피겨스케이팅 팬이 되었고, 무엇보다 김연아가 올림픽 챔피언이 되었다.

김연아 팬을 승냥이라고 부르던가, 그렇다. 나는 드러운 승냥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연아의 경기를 돌려본다. 06/07시즌 북산느의 탱고와 종달새의 비상, 07/08시즌의 박쥐와 미스사아공, 08/09시즌의 죽음의 무도와 세헤라자데, 09/10시즌의 007과 거신, 그리고 각 시즌별 갈라쇼 영상에 아이스쇼 영상까지 끌고루 돌려보며 좋아라한다. 그녀의 코치 브라이언 오서는 김연아가 행복한 스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스케이터의 행복한 팬이다.

나의 욕심은 김연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연아의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나 피겨스케이팅에는 점프가 6가지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김연아는 첫 점프로 3Lz-3T를 뛰는데 GOE를 +2점이나 받는 엄청난 점프"라고 말해도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외계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래서 늘 언론에게 아쉽다. 언론이 즐거차게 말해줘서 아사다 마오의 장기인 트리플 악셀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김연아의 장기인 첫 점프는 모른다는 것인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이 16자나 되는 긴 이름이라서? 3-3점프라고도 쓰고, 트릿트라고도 줄이면 4글자밖에 안되는데!

행복한 팬은 한국 언론의 기사만 보면 불행해진다.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자국에



Queen Yu-na처럼



있는데, 저렇게 완벽한 기술을 구사하는 스케이터가 한국에 있는데, 어째서 한국의 기자들은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모습을 그리기보다 예쁜 천재 소녀 김연아만 찾고 있을까. 3Lz-3T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온라인 뉴스에는 김연아의 프로그램을 분석해주는 기사가 드는 대신 그녀가 대학교에 갈 때 입었던 옷은 어떤 브랜드의 얼마짜리 옷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뜬다. 김연아의 사진을 올려놓고 하체와 상체의 비율은 황금비율이고 허벅지 둘레도 완벽하며 8등신에 가깝다란 팔의 모양새가 얼마나 곱고 예쁜지 설명하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나는 경악했다.

이런 언론의 시선이 전달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 김연아를 몸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환원해버리는 태도가 싫다.

물론 김연아는 예쁘다. 은반 위에서 환하게 웃는 김연아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 그렇지만 김연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김연아는 실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진심으로 웃는 환한 미소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많은 어머니들이 그녀의 딸을 김연아처럼 예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김연아처럼 훌륭한 딸로 키웠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빛나는 딸이 되도록.

김연아는 나의 영웅이다. 그녀의 천재성, 재능, 노력, 그리고 업적이 나를 매료했다. 중학생 때 축구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나에게 킥스에 대해 설명하고, 킥스의 사진을 보여주고, 학원 책상에 라이언 킥스의 이름을 도배하던 남학생이 생각난다. 그의 영웅이 킥스였다면 나의 영웅은 위대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다.

by 올림픽 챔피언이라 행복해요 기린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나는 노동이라는 것이 나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인줄 알았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강의실 책상 위에 드문드문 올라와있던 음료수 섭취의 흔적과, 건물 로비에서 사람들이 흘린 배달음식의 흔적이, 쓰레기가 주변까지 넘쳐흐르던 화장실의 쓰레기 봉이 다음 날이면 감쪽같이 깨끗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가온 어느 연합채플 날에, 피켓을 든 학내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피켓이었다. 이 피켓들을 왜 붙이고 붙이는 노천극장 앞에서 들고 있는 지에 관해 부끄럽게도, 나는 고개를 가웃했다. 나와 노동자의 삶이 긴밀하게 학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부끄럽게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체불 임금이 3억 5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 또한 부끄럽게도 나는 느끼지 못했다. 다른 어느 날, 학내 미화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말이면 한 명에서 7층짜리 건물을 다 감당해야 하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부터 노동에 관한 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 고민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돈 좀 달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는 분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속을 밝히고 인사를 하자 환한 웃음이 쏟아졌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반겨주는 분들



여성노동, 그 끝없는 긍정에 관하여

이 있었다. 회의를 위해 찾아 갈 때마다 나는 그 환하디 환한 웃음들과 마주했다. 부끄러웠다. 그들과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었던 나의 무책임함이 또렷이 살아나면서 내가 이런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관해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던 임금 단체협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다. 수많은 학내의 사람들 중 일부라도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그 관계를 논치 못했다면 학교와 용역업체의 태도²⁾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3달 가량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³⁾ 쟁의 조정 신청 기간 동안, 연세대 분회에서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기로 하였고, 공동대책위원회가 합류하기로 하였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중앙도서관 앞에서 순번을 바꿔가면서 학내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피켓과 플랑을 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발언을 하고, 발언 사이사이에 '노동자는 일화용품이 아니다. 연세대학교는 생활 임금을 보장하라.' 라던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내 정규직 노동자들인 교직원들이 1100%에 달하는 상여금을 받을 동안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누 세트만을 받을 뿐이었고,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식대 또한 지급받지 못했다. 학교와 사측에서 제시한 식대는 월 1만원이었다. 학내에서 1만원으로 20끼를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은 모두 체득하고 있을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정문 앞에 달려 있던 '총장님은 한 달 만원으로 20끼 드실 수 있나요?' 라고 쓰여 있던 플랑은 학교 측에 의해 풀려 나무에 돌돌 말려 있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분회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학교의 높은 분이 보시면 어떡하냐.'고 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욱 처참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학교에 내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선전전 기간 동안 더욱 커진 부끄러움에 시달리던 나를 지탱해주었던 것은 선전전의 어떤 순간순간들이었다. 휴식 시간이 아닌 때에 이뤄지는 선전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학내 노동자들의 점심 휴식 시간 동안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자신의 점심시간을 쪼개어 자신의 삶을

② 연세대학교는 다수 용역업체에 학내 미화/경비노동을 위탁하는 간접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학내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만을 받고 일을 하며, 주말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③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국가에서 중재하는 형태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면 그것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이런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가장 큰 쟁점은 식대 문제와 상여금이었다.

위한 투쟁을 해 나가는 학내 노동자들의 모습과 그 곳에 함께 있었던 내가, 부끄러움에 시달리는 나를 지탱해주었다.

내가 TV에서 보아왔던 '머리띠를 두르고 질서 있게 결사 투쟁을 외치는' 모습 대신 '플랑을 들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색색깔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물결이 만들어내는 조용하지만 질은 파장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단호한 목소리와 몸짓이 뚜렷한 각을 만들어 내는 투쟁의 현장이 아니었다. 자유 발언에서는 자신의 삶이 묻어나고, 긍정의 언어가 묻어났다. 긍정의 언어가 묻어나는 것이 좋았다. 정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함과 눈물과 분노보다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밝은 마음들이 나에게 도리어 아프게 휘돌아쳤다.

들려오던 말 중에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 해 주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라는 발언이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얼마나 소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학내에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들이 손쉽게 비가시화 되고 있는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칠 때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더 크게 들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닌, 각자의 목소리의 색깔이 하나하나 묻어나는 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자유발언을 하러 나가면 박수소리가 이어졌고, "우리 ○○○학생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한다."며 칭찬하는 소리가 백양로에 울려 퍼졌다. 얼마 전에 보았던 흥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기록을 담은 영화 <외박>에서 보았던 집회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즐겁게 집회를 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소풍 카트를 매장 앞에 기습적으로 잔뜩 쌓아 놓던 그들의 통쾌한 모습이 떠올랐다.

선전전이 끝나고 공지사항을 들고 해산할 때에,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조합원들에게 외려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나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선전전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던 노동자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이 풀어내는 끝없는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 아름다웠다. 학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보여주었던 긍정의 순간과 그 분들의 웃음을 나는 당분간은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최저임금만을 받고 살아왔습니다."라는 발언에,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의 상여금에 나의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학내 여성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고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by 아프디 아픈 기록을 마주하며 살



페미니리 책 읽고 서평 쓰자!

지난 3·8 여성의 날 주간 행사 동안 중앙도서관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작은 여성주의 도서관 페미니리 분점 1호점을 기억하시나요?

여성학 지치 도서관 페미니리는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분홍색 문을 똑똑 두드리고 '페미니리 사용하러 왔어요' 한 미디어면 방해받지 않은 채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읽고 싶고, 느끼고 싶어 차곡차곡 모인 여성주의 서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뭘까?'라는 소소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여성주의 입문서에서부터, 주제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에세이와 여성의 시각에서 서술된 소설책들, 그동안 담론으로 구성되지 않던 여성의 몸, 여성적인 것, 여성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맺음을 성찰하게 성찰하는 여성주의의 작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살아온 사고방식을 뒤집어보고 해체해내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비롯한 모든 이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리의 책 한 권 한 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책꽂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편안한 독자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대어목책에 도서관명을 적고 2주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긴 시간동안 페미니리와 함께 많은 기억과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아직 페미니리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페미니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페미니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주의 책을 골라 읽고 난 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낸 서평을 speak-out@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서평은 다음 매체에 실리게 됩니다. 글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총학생회에서 제작한 예쁜 텀블러를 드려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긴 겨울부터 봄의 초입까지

<Speak-out>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성폭력 각본을 깨는 반성폭력 운동!

■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이하 여연자) 연합회를 연초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단위가 모여 함께 고민을 나누었던 결과물로 2010년 자치규약 자료집(굿바이 거짓명화)과 자치규약 영상 설명을 위한 리플렛,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가이드북, 새터 기간에 숙소에 붙일 자치규약 포스터를 배부하였습니다.

■ 새터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학생화실에 비치해 둘 월경대를 각 단과대 학생화실에 배포하였습니다. 단과대 학생화실에 찾아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반성폭력 주간 행사를 3월 9일부터 1주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입구 및 민주광장에서 자보전을 진행하고, 영화 <이모티콘>상영회를 열었고, 욕망찾기 워크샵(욕망해,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성에 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하다

■ <겨울방학 따끈따끈 도란도란 여성주의 세미나>를 <연말>이성에 중심주의를 주제로 하여 1월 7일부터 5주간 진행하였습니다. 긴긴 겨울날 동안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감하지 않는 몸, 긍정하며 피워올리다

- 지난 3월 5일 청계광장에서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민우회 등 25개 단체가 함께 주관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에 함께하였습니다.
- 지난 3월 31일 여성이론연구소에서 주최한 낙태에 관한 콜로퀴움에 함께하였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화여자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세종대학교 _____와 함께 여성의 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 몸 사용 설명서(가제) 영화상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고 힘 있는 한 걸음, 에코페미니즘

- 생협국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생협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식당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3월 31일 에코페미니즘 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생태적으로 구성된 학내 상황에 문제제기 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생태적인 삶을 꾸리는 것에 관해 고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해요!

여학생 교육권을 펼치다!

- 3·8 여성의 날 주간 행사를 3월 8일부터 1주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노동에 관한 자보전, 대안월경대 만들기, 페미니리 분점 퍼포먼스, 여성주의 중고도서 판매,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510일간의 투쟁 기록에 관한 영화 <외박>과 여성노동에 관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설지가 않아>상영회를 열었고, 여성노동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3월 29일에 있었던 등록금 문화제(Yes, we can!)기획에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주의를 무지갯빛 다양한 목소리로 풀어내다

- 여학생수첩이 나왔어요! 3월 10일부터 각 단과대 학생화실과 총여학생화실에서 여학생수첩을 배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봄맞이 화장실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학관, 대강당,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여성주의 매체 영무조개 네트워크 불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

-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 노동쟁의 조정신청 기간 동안 중앙도서관 앞 선전전에 참여하였습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달 만원으로 20끼를 해결해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지난 3월 27일 언니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대학생 페미니스트 대담에 함께하였습니다.

-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에코페미니즘운동팀에 함께해요!



© Nam, Yoshida

비좁고 더럽고 복잡하기만한데 '명물거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신촌거리에서 한번이라도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간만에 채식 식사를 하려고 길을 나섰더니 온통 고기밖에 없어서, 진동하는 것은 고기 냄새밖에 없어서 절망한 적이 있나요?

건물 옥상에 나무 심어놓고 잔디 조금 깔아 놓으면 그것이 녹색 공간이라고 믿는 그 억지 논리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었나요? 학교 담장을 허물고 녹색과 갈색으로 대충 덧칠해 놓고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녹지를 조성했다고 생색내는 그 위선에 숨이 막혀온 적이 있었나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을 앗아가고 댄손어업을 하는 여성어민들의 생계를 끊어 놓더니 중국에는 저어새의 최후 터전까지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덮어 버리려는 모습에, 건물을 올리고 올려서 '글로벌 연세'의 또 다른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송도캠퍼스를 짓는다는 상상력에 반박해주고 싶지는 않았던가요? 갯벌을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박아 놓고, 바다의 삶을 압박을 하고 갯벌타워-영문명 GET PEARL TOWER-를 올려놓은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던가요?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은 이러한 비 생태적인 삶에 반기를 듭니다. 비 생태적인 학내의 삶을 조금 조금 짚어 잘근 잘근 물어 나가고, 앞으로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지에 관해서 고민합니다. 학내에서 조금이라도 생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삶을 고민합니다. 더욱더 빠르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하는 삶의 가속기에 반대하고, 우리 모두의 다양한 삶의 속도를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해 나갑니다. 나의 삶의 속도를 가만히 눈여겨보고 느끼며, 타인의 삶의 속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삶을 꿈꾸어 나갑니다.

빨리 빨리 더욱 더 많은 술을 팔기에 바쁜 대중적 장터에 문제제기 하며 우리의 속도에 맞춰 조바심 내지 않는 생태 장터를 생각하고, 더욱 더 하얗고 감쪽같이 홀로 처리해야 하는 1회용 생리대에 문제제기 하며 직접 만든 대안 월경대를 사는 삶을 생각합니다. 텃밭을 일구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온 야채로 만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각자 싸 온 도시락을 펼쳐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에 함께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관심의 새싹 꿈틀꿈틀 움직이는 분들은 speak-out@yonsei.ac.kr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학생회관 3층 왼쪽 분홍색 문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총여학생회실로 찾아와주세요! 에코페미니즘적으로 서로를 알리는 삶, 서로를 살리는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보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해 나가며 신나게 우리의 삶을 재구성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2010년 5월 15일(토)~6월 11일(금) (4주간 신청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 speak-out@yonsei.ac.kr / 02)2123-3645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은 학내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 모임 및 여학생 모임 등을 대상으로, 모임의 성격,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학내 여성주의, 여학생 소모임에서 여성주의 세미나, 매체발행, 여성주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섹슈얼리티, 젠더,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단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앞에 놓여진 신청서를 가져가신 후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영수증은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시거나 총여학생회실에 직접 오셔서 내 주시면 됩니다.

경계를 울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후기



나무 • 글을 쓰는 건 힘들다
살들은 너무나 복잡한다
그 복잡함을 풀어내기에 나는 늘 부족하다
풀어내도 풀어내도 영진부분들은 남아있다
그것이 끝내 아쉽지만 놓아야 할 때는 온다
그렇지만 글을 쓰면 알게된다
글을 쓰는 건 일종의 운동이며 운동은 힘이 있다는 것
그 힘으로 나를 채우고 또 영진 곳을 풀어나가겠다

별 • 길고도 길고도 이상한 겨울이었다. 영무조개의 내부에 축축하게 물기가 고여서 산호와 이끼 등의 기묘한 공생체들이 서식한다. 햇빛이 필요한 것들. 한 점의 연쇄들. 부끄럽고 고마워라. 어디 숨을 대를 구했다. 내뱉대로 해라 디비더를 주구장창 틀어놓고 녹차를 골라골라 마셨다. 바람소리가 벽을 뚫뚫 두들겨대서 누가 집으로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꿈이 되었다.

쌀 • 매일 밤 나를 찾는, 너에 대한 그리움

기린 • 트리플러즈 트리플토루프 컴비네이션 점프는 뒤를 보며 활주하다가 오른발 토를 찍고 왼발 아웃에지로 도약하는 러츠 점프를 3바퀴 뛰 후 착지한 오른발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시 왼발 토를 찍고 오른발 아웃에지로 도약 하는 토루프 점프를 3바퀴 뛰는 9.5점짜리 기술입니다.

삶 • 마감은 힘들다. 마감을 하는 나는 최소 세 명의 사람으로 분열하고, 마치 5분 뒤에 수업 가야 하는데 배달음식이 안온 마냥 조바심에 쫓겨 다닌다. 그런데 내가 왜 또 마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하하. 살다보니 벌써 봄이다. 맑소사.

마우스 • 구슬된 경험이 글로 채워지는 그 순간, 수많은 맥락과 감정이 사라진다. 말하는 동안 그녀들이 보였던 표정, 망설임, 웃음, 그리고 미묘한 공기는 활자 위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녀들의 진솔한 감정과 경험을 담아내고자 시작했던 대답이지만 채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끝없이 갈증에 시달렸다. 내 귀에 들리는 녹취파일은 아직 살아 숨 쉬는데, 내가 써내려가는 채록은 오래 전에 죽어버린 화석일 뿐이었다.



system_gongg1004